

## 보 도 자 료

### 국민연금 등 주요 한진칼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 한진칼 주주인 정석인하학원 소속으로서 국민연금 수탁위에 참가하는 허희영 교수의 이해상충 가능성은 심각한 우려. 한진그룹의 특수관계자로서 조원태 이사 후보가 등기이사인 정석인하학원은 한진칼의 지분 2.14%를 보유하여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며, 프랑스 검찰의 수사에서 에어버스 리베이트가 제공된 정황으로 추정되고 있는 법인.
- 세계적인 항공업 위기의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를 야기한 주체가 “항공 전문성”을 내세워, 국적항공사를 불모로 주주, 채권자와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불행한 상황. 항공전문가가 아닌 항공업으로 사익을 취하는 의혹
- 재무위기를 야기한 경영 책임자의 퇴진 및 독립적인 이사회 수립이, 한진그룹이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겪지 않고, 주주와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최선의 방안

KCGI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 관련 부당한 이해상충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등기 이사로 재직중이며, 금번 한진칼 주주총회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석인하학원 소속인 허희영 항공대 교수께서 국민연금 수탁위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가하시는 상황은 이해상충은 물론 국민의 자금이 투여된 공공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정석인하학원은 한진그룹의 특수관계자로서 조원태 이사 후보가 등기이사이며, 현재 한진칼 지분 2.14%를 보유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최근 프랑스 검찰의 수사에서 에어버스 리베이트가 직접 제공된 정황으로 추정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는 한진그룹 직원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상황입니다. 2019년 주주권행사 분과위원이 아닌 책임투자분과위원으로서 대한항공 이사회 의결권 의논과정에 참가한 김종대 인하대 교수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진그룹은, 항공산업의 위기상황에서 “항공전문가” 인 기존 경영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막상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1) 조원태 사내이사 후보는 배구연맹 활

동 이외에 아무런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으며, 2) 하은용 사내이사 후보는 한진해운 사태의 실무 당사자이며, 3)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델타항공을 대한항공의 증자투자자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인 한진칼의 조원태 주주를 위한 우호지분으로 유치하는데만 집중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항공전문가인지? 아니면, 항공업을 통해 다른 주주와 공공자금을 사익을 취하는 전문가인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주주와, 채권자와, 구성원과 고객이 함께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에 개탄합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한진그룹은 정리해고를 압박카드로 임직원들을 통해 우호지분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불법적인 금품의 제공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임직원과 회사가 절체절명인 상황에서, 사익을 위해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목과할 없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그 주체가 현재의 부채위기를 야기한 현 경영진이라는 점에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위기타개를 고민해야할 한진그룹 경영진이 주주연합이 제안한 위기타개를 위한 토론도 거절하고 사익추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진정 회사를 위한다면, 현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한진그룹을 벼랑끝에서 살리면서, 주주, 채권자, 구성원, 공공의 이익을 모두 보호할수 있는 길은 현경영진의 퇴진과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임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본 자료는 이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제시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기술적 오류나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정보 제공 후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정확도, 완성도,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으며, 본 자료에서 최신의 내용을 유지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귀하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상의 참고자료로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에서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손실, 손해(간접, 특별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자료는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 등은 할 수 없습니다.